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조설애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The Effect of Meaning of Parents to Depression :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Seolae Jo

Researcher,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부모의 의미의 연령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 각각 1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의미와 우울은 부정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셋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낮춤으로써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의미를 증진하고 삶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부모의 의미, 가족의 의미, 삶의 의미, 우울, 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the meaning of parents in age, and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parents,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The online survey data of 400 including 100 late-adolescents, 100 young adults, 100 mid adults, and 100 older adults was us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eaning of par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ning in life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meaning in lif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econd, there were no age difference in meaning of parents in anova analysis. Thir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meaning of parents had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mediated by meaning in life.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meaning of parents and meaning in life can be protective factors on depression. Finally,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eaning Of Parents, Meaning Of Family, Meaning In Life, Depression, Adaptation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로[1] 한국에서도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2]. 우울은 슬픈 기분뿐 아니라 흥미의 상실, 무가치감, 피로감과 활력의 감소, 주의집중의 어려움 등을 보이는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3,4].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능을 저하시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B5A16084124).

*Corresponding Author : Seolae Jo(seolaejo@pusan.ac.kr)

Received March 20, 2022

Revised April 5, 2022

Accepted April 20,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5], 자살 사고와 자살 행동까지 야기하기도 한다[6].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데, 우울 장애는 정신의료기관 진료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어[7] 성인 우울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 하나가 부모이다[8,9]. 부모는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인 관계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대인 관계이다[10].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한국은 2070년 기대 수명이 91.2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 이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자녀가 부모와의 시간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관계의 종결이 쉽지 않기에[12] 이 긴 시간동안 부모는 자녀의 발달, 정신 건강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3,1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8], 부모와의 의사소통[15], 부모에 대한 애착[16], 부모의 사회적 지원[17]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자신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지각할수록, 의사소통의 질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낮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여러 측면들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총체적인 의미(meaning)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가족관계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 원천임을 주목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8-20]. 그리고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의미 등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의 의미가 행복과 적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의미란 개인이 특정한 대상과 사건 및 대인 관계 등의 관계성에 대해 갖는 정신적 표상을 뜻한다[21]. 그러므로 가족의 의미란 가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표상이라 볼 수 있다[18]. 그런데 개인은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합해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의미

는 그 자체로 총체적이며 주관적이다[22,23]. 또한 의미는 개인이 속해있는 국가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나 가치를 반영하여 만들어진다[24].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녀는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부모와의 다양한 경험들, 즉 선행연구들에서 다룬 양육 태도,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 애착 등과 관련한 경험들을 통합하여 부모에 대해 총체적인 의미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삶의 의미나 자기 자신, 분신,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25] 자녀에게 양보하고 애쓰는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26]. 부모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여기고[27] 자녀들도 자신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고 있다고 여긴다[28]. 자녀는 부모가 나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희생하고 양보해주기 때문에 부모의 고생스러움에 죄송함과 고마움의 측은지정의 정서를 느낀다[26]. 그리고 이런 측은지정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기쁜 일을 더 많이 하고, 부모가 아픔을 느낄 일을 더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29].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송구한 마음이 들고[30] 효도하고 보답하고 싶으며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26]. 이러한 한국 부모 자녀의 일체감이나 측은지정은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31].

부모의 의미(meaning of parents) 연구를 살펴보면[18] 자녀들이 한국의 고유한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인 일체감을 반영하고 부모와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해 부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는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요인 1),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으로(요인 2),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요인 3),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으로(요인 4) 부모의 의미를 지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의미 4개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의미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총체적인 의미를 잘 반영하며, 행복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 등 부모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8, 15, 17] 또한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의미에 주목하고,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관련된 요인으로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를 고려할 수 있다. 그 근거로서 삶의 의미 원천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삶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삶의 의미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들이 가족관계가 삶의 주요한 의미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32-40]. 미국, 호주, 이스라엘, 한국, 이란 등의 여러 문화권에서 또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초기, 중년 성인과 노인 등 여러 연령대에서 가족관계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다양한 문화권과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족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삶의 의미가 성인의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2,41-44]. 삶의 의미를 상실한 실존적 공허감과 고통으로 우울이 경험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면 우울을 경감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45]. 비단 일반 성인만이 아니라 암이나[46] 뇌졸중[47] 등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는 환자의 우울에도 삶의 의미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관계가 삶의 중요한 의미 원천이라는 연구 결과와 삶의 의미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가족생활주기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 자녀 관계는 변화하며 중요한 과업이 달라지게 된다[48]. 자녀가 나이가 어릴 때는 자녀의 돌봄 제공자인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4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 전 및 학령기 자녀 가족은 어린 자녀에게 집중하기 쉬운 단계로 자녀를 훈육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자녀 가족은 부모 자녀가 경계를 조정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며, 서로의 역할 변화에 타협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의 학업 및 직업 훈련을 통해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인 초기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의 독립을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녀가 중년기가 되면 부모 자녀는 독립한 자녀와의 관계 재형성이 필요하다.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자녀가 새롭게 만든 가족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가족은 부모의 노화 문제에 대처하고 자녀의 배우자 및 손자녀와 관계 형성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 자녀 관계를 고려하면 부모의 의미 또한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P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심의를 받고 진행하였다(과제번호 PNU IRB/2022_15_HR).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100명, 성인 초기 30세 이상 44세 미만 100명, 중년기 45세 이상 65세 미만 100명, 노년기 65세 이상 100명 총 400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각 연령대에서 남자 50명, 여자 50명씩 모집하여 남자는 총 200명, 여자 총 200명이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부모의 의미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 44.03세(SD=16.895)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의 의미

부모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의미 척도[18]

를 사용하였다. 4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요인 2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요인 4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이며,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요인 1이 .93, 요인 2는 .78, 요인 3은 .93, 요인 4는 .86이었고, 전체 내적 일치도는 .95였다.

2.2.2 삶의 의미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하였고,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이 한국에서 타당화 작업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50,51]. 이 척도는 의미 존재와 의미 추구의 두 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당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의미 존재 요인이 .90, 의미 추구 요인은 모두 .92였고, 전체는 .93이었다.

2.2.3 우울

Kessler 등(2002)이 개발하고[52],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에서 번역한 Kessler 우울척도(K6)를 사용하였다. 6개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했으며, cronbach's α 는 .92였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요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의미가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 모형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지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최대 절대값이 1.601, 첨도

는 3.323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왜도 <2, 첨도 <4 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53].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의미 요인 1은 요인 2, 3, 4 및 부모 의미 전체 값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각 $r=.60, p<.01; r=.82, p<.01; r=.73, p<.01; r=.89, p<.01$) 삶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r=.49, p<.01$)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22, p<.01$). 부모의 의미 요인 2도 요인 3과 4 및 전체값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각 $r=.62, p<.01; r=.51, p<.01; r=.77, p<.01$) 삶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r=.42, p<.01$),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39, p<.01$). 부모의 의미 요인 3도 요인 4와 전체값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각 $r=.83, p<.01; r=.94, p<.01$) 삶의 의미와는 정적으로($r=.46, p<.01$), 우울과는 부적으로 상관을 보였다($r=-.24, p<.01$). 부모의 의미 요인 4는 부모의 의미 전체와 정적 상관을($r=.88, p<.01$) 삶의 의미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r=.46, p<.01$),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09, ns$). 전체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r=.52, p<.01$)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324, p<.01$).

Table 1. Result of Correlational Analysis

	1	2	3	4	5	6	7
2	.600**						
3	.829**	.622**					
4	.733**	.519**	.837**				
5	.896**	.779**	.940**	.889**			
6	.492**	.421**	.461**	.460**	.522**		
7	-.225**	-.397**	-.243**	-.097	-.271**	-.324**	
M (SD)	5.93 (1.03)	5.21 (1.33)	5.26 (1.17)	4.83 (1.23)	5.31 (1.00)	5.10 (1.07)	3.25 (1.41)

* $p<.05$, ** $p<.01$, *** $p<.001$

1 Meaning of Parents Factor 1, 2 Meaning of Parents Factor 2, 3 Meaning of Parents Factor 3, 4 Meaning of Parents Factor 4, 5 Total meaning of Parents, 6 Meaning of Life, 7 Depression

3.2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의미 차이 검증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네 개의 연령이고,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 4가 종속변인이었다. Box의 검증 결과 $p=.000$ 으로 공분산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Levene의 검정을 추가로 살폈다. 부모의 의미 요인 1과 2는 각 $p=.002$ 와 $p=.001$ 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모의 의미 요인 3과 4는 각 $p=.344$ 과 $p=.516$ 으로 $p>.05$ 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이에 부모의 의미 요인 4개 모두를 MANOVA로 분석할 수 없어, ANOVA를 실시하였다.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못한 부모의 의미 요인 1과 2는 Welch's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를 통해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의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부모의 의미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과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각 $F(3, 396)=.679, p>.05$; $F(3, 396)=1.746, p>.05$].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대상과 요인 4 동일시와 부상의 대상 역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각 $F(3, 396)=.825, p>.05$; $F(3, 396)=.544, p>.05$]. 즉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부모의 의미 요인들은 모두 연령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ge Difference of Meaning of Parents

	1 group (N=100) M(SD)	2 group (N=100) M(SD)	3 group (N=100) M(SD)	4 group (N=100) M(SD)	F (3,396)	p
meaning of parents 1	5.86 (1.02)	5.85 (1.29)	5.95 (.92)	6.03 (.82)	.679	.517
meaning of parents 2	5.08 (1.11)	5.09 (1.36)	5.29 (1.05)	5.38 (.94)	1.746	.132
meaning of parents 3	5.38 (1.08)	5.23 (1.33)	5.31 (1.06)	5.13 (1.21)	.825	.481
meaning of parents 4	4.86 (1.19)	4.71 (1.40)	4.93 (1.08)	4.85(1.24)	.544	.652

* $p<.05$, ** $p<.01$, *** $p<.001$
 1 group late-adolescents, 2 group young adults, 3 group mid adults, 4 group older adults

3.3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부모의 의미, 삶의 의미와 우울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는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이 수용가능하였다($\chi^2(df=24)=213.882, p<.001, RMSEA=.080,$

CFI=.924, TLI=.886]. Table 3과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본 결과 범위는 .65~.95로 나타나 타당했으며, 모든 C.R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3. Result of Measurement Model

	sub factor	B	β	S.E	C.R
meaning of parents	factor 1	.837	.867	.036	27.597***
	factor 2	.694	.653	.047	14.917***
	factor 3	1.059	.959	.038	27.597***
	factor 4	1.000	.863	-	-
meaning in life	factor 1	1.000	.795	-	-
	factor 2	.939	.865	.076	12.357***
depression	factor 1	1.000	.836	-	-
	factor 2	1.052	.942	.048	22.009***
	factor 3	.951	.815	.049	19.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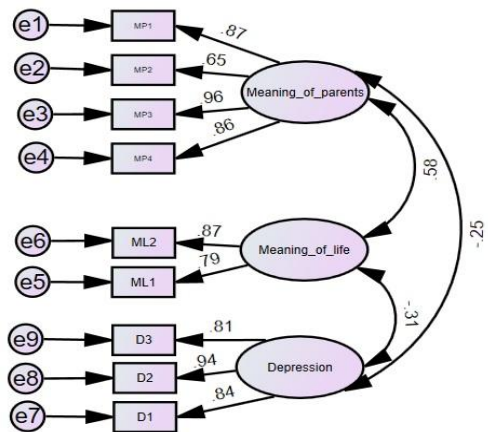


Fig. 1. Measurement Model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5)=215.714, p<.001; RMSEA=.079, CFI=.924, TLI=.890$). Table 4와 Fig 2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beta=.58, p<.001$), 삶의 의미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44, p<.001$).

부모의 의미가 삶의 의미를 매개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살피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이

-0.199~-0.102 범위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다[$\beta=-0.199, p<.01$]. 그러므로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통해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4. Structural Model

Path	B	S.E	C.R.	p	β
meaning of parents→ meaning in life	.555	.055	10.128	.000	.583
meaning in life → depression	-.899	.152	-5.905	.000	-.342

Table 5. Total, Direct, Indirect Effects of Structural Model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95% confidence interval		p
meaning of parents→ meaning in life	.583	.583				
meaning in life → depression	-.342	-.342				
meaning of parents→ depression	-.199	.000	-.199	-.273	-.102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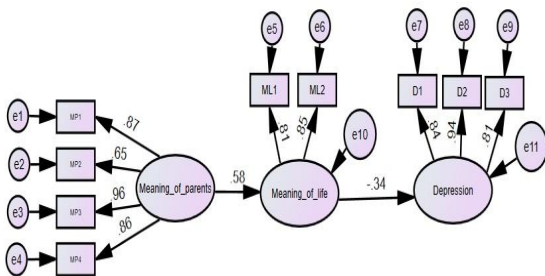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부모 자녀관계의 고유성을 잘 보여주는 부모의 의미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 4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은 삶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의미 요인 4는 삶

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의미 요인 1은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 요인 2는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요인 3은 존경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 요인 4는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다.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은 삶의 의미와 우울과 모두 관련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인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성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며, 존경할만한 미덕을 가지며, 충분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가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33]와 부모의 애정 표현[54], 민주적 양육태도[55], 부모의 자율성에 대한 격려[56], 부모의 지지가 우울을 완화한다는 연구[57] 등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런데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과 달리 요인 4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은 삶의 의미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우울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부모 자녀의 일체감이 가진 양면성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분신으로 여기면서 [25] 자녀의 교육적 성취나 성공을 자신의 행복이나 성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58].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와 보답의 행동을 보이려 하는데[26] 부양 부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자기효능감과 성취 동기를 높이고[59]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거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26]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 자녀의 일체감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독립한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만들기도 하고[60],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한 심적 부담이 증가되는 부정적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61]. 부모의 의미 요인으로 드러난 한국 부모 자녀 간의 일체감이 어떻게 자녀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혹은 중립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부모의 의미 요인 2가 성인으로 인정하는 대상이며, 요인 4가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으로 의미를 지각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후기 이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독립성의 획득과 동시에 부모와 친밀한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이 모순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62-64]. Kagitcibasi[65]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부모 자녀 관계

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문화에서는 가족끼리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청소년 후기 이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밀접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부모의 의미가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통의 대인 관계와 다른 부모-자녀 관계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일 수 있다. 한국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싫거나 좋거나 같이 살아야 하고, 개인의 사적 특성이 완연하게 노출된 관계이면서, 종결할 수 없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관계이다[66]. 거기다 인간은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다[12].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며, 성장하는 동안도 부모는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준다[67]. 성인으로서의 독립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며[12], 부모는 자녀의 조력자나 조연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한다[68].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전생애동안 가족 동반자로 기능하여[69] 친구나 직장 동료, 배우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관계 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이며, 성인으로서 인정해주는 대상이며,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게다가 한국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부모 부양, 효도 및 부모와 자녀의 일체감이 강조된다[70].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키우고 희생하는 보답으로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71] 부모의 양육과 지원에 대한 자녀의 보답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72].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및 노년기 모든 연령의 자녀가 부모를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의 의미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부모의 의미가 삶의 의미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높이고 삶의 의미는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부모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으로 감사(gratitude)를 고려할 수 있다. 감사는 타인의 이타적인 행동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고마움이다[73].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통해 증가된 자신의 웰빙을 인식한다[74]. 감사하는 사람은 경험 속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려 노력하고[75] 사소한 긍정적 경험에도 감사하고 타인에게 감사 표현을 더 많이 한다[76]. 따라서 감사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나 지지, 부모와의 친밀감 등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부모의 의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성인으로 대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할만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한 연구에서[77]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 부모의 헌신, 성실함, 인자함 등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 부모의 탁월한 능력이나 유능성보다 성실한 태도에 초점을 둔 것을 강조하면서, 능력 차원보다는 자기조절을 통한 노력 차원이 더 핵심적 가치라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자상하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인자한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의미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실하고 자애로운 모델이 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해서는 의미 치료(logotherapy)를 고려해볼 수 있다. Frankl[78]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려는 삶의 의미에 대한 동기가 있으며,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rankl이 창시한 의미치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중재로, 성인 및 노인 우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5]. 의미치료는 웹기반으로 동영상 을 보고 토론 게시판과 개인 면담 등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79], 집단에 참여하여 자신의 유일성과 긍정성을 찾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등 세션을 가지고 집단원들과 토론하거나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80,81]. 가장 많이 연구된 의미치료 방법 중 하나는 자서전 쓰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탐색하는 방법이다[82].

자서전 쓰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가치감을 증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83]. 특히 수면 문제 감소, 우울 감소, 신체 건강 향상, 안녕감 증진 등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84-87]. 그러므로 글쓰기를 통해 삶을 회고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증진하여 우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후기 이후의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더 어린 연령의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의미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지만 부모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선행 요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가 살아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의미를 연구하였지만, 부모가 사망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의미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부모와 자녀 외 조부모, 부부 중심 가족의 배우자, 한부모와 자녀 등 다른 가족 관계에 대한 의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K. Shung & J. S. Kim. (2021). Social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Korean adults: Results from a longitudinal study. *Mental Health & Social Work, 49(1)*, 229-258.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2021 Mental Health Survey Results*.
- [3] S. I. Kim & Y. C. Jung.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Tenbdency and Their Home-Envior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2(1)*, 5-27.
- [4] Y. N. Kim & G. C. Lee. (2018). A Multilevel Analysis of Effect of Community Safety on Depression : Comparison among Age Groups. *The Women's Studies, 99(4)*, 5-3.
- [5] D. Richards. (2011). Prevalence and clinical course of depression: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7)*, 1117-1125.
- [6] T. Troister, M. T. D'Agata & R. R. Holden. (2015). Suicide risk screening: Comparing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eck Hopelessness Scale, and Psychache Scale in undergraduates. *Psychological Assessment, 27(4)*, 1500-1505.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2021 Covid-19 Nation Mental Health Survey Results*.
- [8] G. Y. Kim & . H. Park. (2019).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Depression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ssertive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0(4)*, 165-177.
- [9] M. S. Kim & H. H. Chung.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in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s between Parents as Perceived by Early Adolescents and Dep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4(1)*, 167-194.
- [10] G. Trommsdorff. (2000). Effects of social change on individual development: The role of social and personal factors and the timing of events. In L. J. Crockett & R. K. Silbereisen (Eds.), *Negotiating adolescence in times of social change* (pp. 58-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1] D. H. Kim. (2021). *50 years from now, life expectancy is 91.2 years, the highest in the OECD*. Yonhapnews (Online).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2051000002>
- [12] S. M. Kwon. (2017). *Psychology in Relationships*. Seoul: Hakjisa.
- [13] J. E. Cooke, L. B. Kochendorfer, K. L. Stuart-Parrigon, A. J. Koehn & K. A. Kerns. (2019). Parent-child attachment and children's experience and regulation of emotion: A meta-analytic review. *Emotion, 19(6)*, 1103-1126.
- [14] B. Laursen & W. A. Collins. (2009).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pp. 3-42). John Wiley & Sons, Inc.
- [15] A. Del Casale, C. Zocchi, G. D. Kotzalidis, F. Fiaschè & P. Girardi. (2021). Prevention of depression in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role of teachers and parents. *Psychiatry International, 2(3)*, 353-364.
- [16] A. Spruit, L. Goos, N. Weenink, R. Rodenburg, H. Niemeyer, G. J. Stams & C. Colonnaesi. (2020).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meta-analysi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3(1)*, 54-69.
- [17] U. C. Kim, Y. S. Park, E. Y. Kim, A. Tsuda & S. Horiuchi. (2009).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al

- support and resiliency of efficacy on stress, depression, and stress management behavior: Comparative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6(2), 197-219.
- [18] S. A. Jo. & Y. S. Chong. (2017). The Relations between Meaning of Parents,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Happiness and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117-138.
- [19] S. A. Jo. & Y. S. Chong. (2018). The Effect of Ambivalence of Meaning of Children on Happiness in Middle-aged: Mediating Effect of Quality of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167-197.
- [20] S. A. Jo. (2021). The Effect of Meaning of Spouse to Quality of Marital Relation and Happiness. *Family and Culture*, 33(3), 143-187.
- [21] R. F. Baumeister. (1999). Self-concept, self-esteem, and identity. In V. J. Derlega, B. A. Winstead, & W. H. Jones (Eds.), *Personality: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339-375). Nelson-Hall Publishers.
- [22] S. J. Heintzelman, & L. A. King. (2014). Life is pretty meaningful. *American psychologist*, 69(6), 561-574.
- [23] P. T. P. Wong. (2012). *The human quest for meaning: Theories,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24] D. Oyserman. (2011).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Cultural mindsets, cultural fluency, and meaning making.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2(1), 164-214.
- [25] S. Y. Kim & T. Y. Jeong. (2013). Meaning of children for Korean mothers. *Collection of Materials for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26] J. J. Lee & S. J. Choi. (2003).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3), 87-104.
- [27] J. S. Choi, Y. S. Park, U. C. Kim & H. S. Heo. (2004). Adolescents' Feeling of Indebtedness of their Parents and It's Psychological Impact. *Collection of Materials for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28] T. U. Kim, Y. S. Park & U. C. Kim. (2010). Psychological Analysis for Parents' Sacrifice in Adolescents. *Collection of Materials fo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 [29] S. J. Choi & S. Y. Yu. (1996). Exploratory study for Shim-Cheong Psychology. *Collection of Materials for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30] Y. S. Park. & U. C. Kim. (2004).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Indigenous psychological exploration of self-concept and family role recognition*, Seoul: Kyoyookbook.
- [31] J. Y. Park & H. J. Yang. (2017). The Effects of Mother's Role Performance on Middle Schooler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1), 21-38.
- [32] S. Y. Park & W. M. Kwon. (2014). The Relationships of Meaning in Life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Comparis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549-569.
- [33] Y. S. Chong, S. A. Jo, J. S. Ahn & Y. J. Jeong. (2012). Effect of Family Relations as a Source of Meaning of Life and Self-transcendence Value on Successful Aging In Korean El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19-41.
- [34] L. Bar-Tur, R. Savaya & E. Prager. (2001). Sources of meaning of life for young and old israeli jew and arabs, *Journal of Aging Studies*, 15(3), 253-269.
- [35] R. A. Emmons. (2003).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virtue: Well springs of a positive life.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 105-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36] M. E. Grouden, & P. E. Jose. (2015). Do sources of meaning differentially predict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5(1), 33-52.
- [37] S. Hupkens, A. Machielse, M. Goumans & P. Derkx. (2018). Meaning in life of older person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Nursing Ethics*, 25(8), 973-991.
- [38] N. M. Lambert, T. F. Stillman, R. F. Baumeister, F. D. Fincham, J. A. Hicks & S. M. Graham. (2010). Family as a salient source of meaning in life in young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 Psychology* 5(5), 367-376.
- [39] N. M. Lambert, T. F. Stillman, J. A. Hicks, S. Kamble, R. F. Baumeister & F. D. Fincham. (2013). To belong is to matter sense of belonging enhances meaning in lif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11), 1418-1427
- [40] O. Stavrova & M. Luhmann. (2016). Social connectedness as a source and consequence of meaning in lif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5), 470-479.
- [41] J. A. Son, J. J. Kim & M. S. Han. (2019).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8(4), 373-381.
- [42] E. B. Lee & S. R. Noh. (2019). The Influence of Subjective Age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and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9(2), 363-388.
- [43] J. Y. Huo, X. Q. Wang, M. F. Steger, Y. Ge, Y. C. Wang, M. F. Liu & B. J. Ye. (2020). Implicit meaning in life: The assessm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implicit meaning in life and relations with explicit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5(4), 500-518.
- [44] M. F. Steger, T. B. Kashdan, & S. Oishi. (2008). Being good by doing good: Daily eudaimonic activity and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22-42.
- [45] S. H. Cho. (2019). Effects of Meaning-Centered Therapy on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and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8(4), 333-343.
- [46] M. Guerrero-Torrelles, C. Monforte-Royo, J. Tomás-Sábado, F. Marimon, J. Porta-Sales & A. Balaguer. (2017). Meaning in life as a mediator between physical impairment and the wish to hasten death in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54(6), 826-834.
- [47] J. Shao, J. Shen, Q. Zhang & T. Lin. (2013). Meaning in life and well-being of older stroke survivors in Chinese communities: Mediating effects of mastery and self-esteem. *Health*, 5(4), 743-748.
- [48] H. J. Bang. (2000). Developmental explo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6(3), 41-65.
- [49] M. J. Cheong & Y. H. Hong. (2018). Moderate Effect of Spouse Child Support in Relation to Life Stress and Satisfaction of Middle-Aged Housewife having Married Children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3(3), 313-334.
- [50]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 M. Kaler.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51] D. R. Won, K. H. Kim & S. J. Kwon.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2), 211-225.
- [52] R. C. Kessler, G. Andrew, L. J. Cople, E. Hiripi, D. K. Mroczek, T. Normand, E. E. Walters & A. Zaslavsky.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53] S. Hong, M. L. Malik & M. K. Lee.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54] J. Y. Choi & K. H. Kim. (2019). Effects of indirect expression of parental affection on youth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6, 185-217.
- [55] M. S. Kang & S. K. Kim. (2020).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Anxie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1(5), 299-314.
- [56] K. J. Moon & K. J. Oh.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43.
- [57] Y. H. Ha. (200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42-52.
- [58] Y. S. Park, U. C. Kim & Y. Y. Shin. (2008). Analysis of filial behavior and express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o their parents. *Collection*

- of Materials for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59] J. S. Choi, Y. S. Park, U. C. Kim & H. S. Huh. (2004). Adolescents' feeling of indebtedness of their parents and its psychological impact. *Collection of Materials for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60] I. S. Kwak. (2013) Study on Family Strength and Happiness of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1), 1-16.
- [61] Y. H. Kim & H. Y. Ahn. (2014).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3), 657-682.
- [62] H. S. Jang. (2002). Attachments to parents, separation - 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1), 101-121.
- [63] Ç. Kâğıtçıbaşı. (2012). Sociocultural change and integrative syntheses in human development: Autonomous-related self and social-cogni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1), 5-11.
- [64] F. Rothbaum & G. Trommsdorff. (2007). Do roots and wings complement or oppose one another?: The socialization of relatedness and autonomy in cultural context. In J. E. Grusec, & P. Hastings (Eds.), *The Handbook of socialization*, (pp. 461-48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65] Ç. Kâğıtçıbaşı. (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03-422.
- [66] S. J. Choi & K. B. Kim. (2011). *Cutural Psychology*. Jisik Sanup Publications Co., Ltd.
- [67] J. J. Arnett. (2016). Life stage concepts across history and cultures: Proposal for a new field on indigenous life stages. *Human Development*, 59(5), 290-316.
- [68] I. Seiffge-Krenke. (2006). Coping with relationship stressors: The impact of different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links to adap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24-38.
- [69] N. Schmidt. & V. Sermat. (1983). Measuring loneliness in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5), 1038-1047.
- [70] Y. S. Park, Y. S. Lee, S. H. Lee, & T. O. Kim. (2015).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and Filial Pie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9(3), 505-542.
- [71] Y. S. Park, U. C. Kim, Y. Y. Lee & Y. S. Lee. (2014). Perception of filial piety and its relationship to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arent-child relational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415-443.
- [72] J. H. Kim & G. S. Yoo. (2017). Perceived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ttitudes toward filial duty contracts among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2(3), 155-183.
- [73] R. A. Emmons & C. A. Crumpler. (2000).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Appraising the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56-69.
- [74] S. R. Baumgardner & M. K. Crothers. (2009). *Positive Psychology*. Pearson.
- [75] P. Watkins, J. Scheer, M. Ovnicek & R. Kolts. (2006). The debt of gratitude: Dissociating gratitude and indebtedness. *Cognition & Emotion*, 20(2), 217-241.
- [76] P. C. Watkins, K. Woodward, T. Stone & R. Kolts.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5), 431-451.
- [77] Y. S. Park, U. C. Kim, K. H. Han. (2003). How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ive their par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9(2), 127-164.
- [78] V. E. Frankl. (1963). *Men's searching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79] A. J. Applebaum, K. L. Buda, E. Schofield, M. Farberov, N. D. Teitelbaum, K. Evans & R. S. Cannady. (2018). Exploring the cancer caregiver's journey through web-based Meaning-Centered Psychotherapy. *Psycho-oncology*, 27(3), 847-856.
- [80] C. H. Kim. (2018). *The effects of the Group Logotherapy for Community-dwelling Elderly with Depressive Symptom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81] S. Robatmili, F. Sohrabi, M. A. Shahrak, S. Talepasand, M. Nokani & M. Hasani. (2015). The effect of group logotherapy on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levels of Iranian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37(1), 54-62.
- [82] S. H. Cho. (2008). Meaning of Life in Wives of Alcoholics: Autobiographical Meth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5), 758-767.
- [83] R. F. Baumeister, & B. Wilson. (1996). Life stories and the four need for meaning. *Psychological Inquiry*, 7(4), 322-325.
- [84] E. M. Gortner, S. S. Rude & J. W. Pennebaker. (2006). Benefits of expressive writing in lowering 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Behavior therapy*, 37(3), 292-303.
- [85] A. G. Harvey & C. Farrell. (2003). The efficacy of a Pennebaker-like writing intervention for poor sleepers. *Behavioral Sleep Medicine*, 1(2), 115-124.
- [86] J. W. Pennebaker & C. K. Chung. (2007). Expressive Writing, Emotional Upheavals, and Health. In H. S. Friedman & R. C. Silver (Eds.), *Foundations of health psychology* (pp. 263-284). Oxford University Press.
- [87] J. W. Pennebaker & C. K. Chung. (2011). Expressive writing: Connections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H. S. Friedm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 (pp. 417-437). Oxford University Press.

조 설 애(Seolae Jo)

[정회원]



- 2006년 8월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6년 8월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문학박사)
- 2020년 7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가족관계, 의미, 행복, 사회정서발달
- E-Mail : seolaejo@pusan.ac.kr